



신원이앤씨 이정규 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은 지난 15일 (유)신원이앤씨 이정규 이사가 고향 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정규 이사와 배우자인 (유)신원이앤씨 박정인 대표 그리고 순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원주가 고향인 이정규 이사는 순창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의 배우자이자 (유)신원이앤씨 박정인 대표는 2023년 순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사업장도 전주에서 순창으로 이전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설립된 건축 설계와 관련 서비스 업체인 (유)신원이앤씨는 2023년 순창으로 사업장을 옮긴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정규 이사는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아내가 순창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면서 "사업장도 순창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정규 이사님의 뜻깊은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러한 따뜻한 나눔과 관심이 순창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 어르신에 고구마 제공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1일1가구 방문 소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직접 파종·수확한 고구마 2.5kg 120상자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인 이 사업에서는 포장한 고구마를 편찮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분들을 직접 방문해 각 가구에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안부확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겨울을 맞아 화재 위험요소 점검 및 전열기구 사용 점검, 겨울철 낙상예방, 건강관리 안내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동 복지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면민 모두가 풍족하고 훈훈한 산동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독교실업회 남원비전지회,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는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실업회 남원비전지회(이하 지회, 회장 유한진)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김장김치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실업인(사업가)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국제 복음 단체인데, 이날 다문화가정 5가구를 초청해 한국의 김장 문화를 소개하고 김치를 담가 10kg씩 나누는 뒤, 회원들이 함께 담은 500kg(10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는 관내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남원시에 기탁했다. 유한진 회장은 "다문화가정에 한국의 김장 문화를 알리고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을 전달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인선 주민복지과장은 넉넉한 나눔으로 김치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지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약류 중독재활 거점’ 전북 함께한걸음센터 개소...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마약류 중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 함께한걸음센터(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새 이름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회복 등 포괄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재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서울, 부산, 대전 3개소만 있었으나 2024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되어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 이정우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백경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장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테이프 커팅식, 시식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함께한걸음센터



의 개소는 지역 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마약류 예방 홍보 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함께 마약류 예방홍보 교육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마약류 치료보조기관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평생학습 문화 확산... 고창군, 어울림 성과공유회

고창군은 지난 15일 동리국악당에서 평생학습 학습자와 강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창군 평생학습 어울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전역에서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 500여점이 전시됐고, 평생학습 기념행사, 성인문해교육 시상식, 특화사업 일일강좌 등을 진행하며 군민들에게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생학습 기념행사에서는 '요델클럽'의 요델공연을 시작으로 생생형 AI가 제안한 고창 교육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조벽(고려대 석좌교수) 교수, 유인경(경향신문 선임 기자) 작가와 함께 '100세까지 특별해지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생활목공예 체험과 백합과 수채화 만들기 등을 하루강좌 형식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평생학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0여점의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들도 눈길을 사



로잡았다. "어르신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표현한 한자품 한자품이 깊은 울림이 전달되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관람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평생학습 컨트롤타워인 평생학습관을 설립해 고창군 평생학습 허브적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송년한마당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가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20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송년한마당'을 개최하며 도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200여 명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7년 시작돼 현재 전북자치도내 1,16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월평균 2,000여 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송년한마당은 '힐링'을 주제로 아이돌보미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유공자 24명에 대한 표창으로 시작한 행사는 아이돌보미 우수 수기 낭독, 힐링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돌봄 현장의 감동과 보람이 공유됐다. 특히, '아이돌봄! 오늘은 나를 돌볼'을 주제로 한 힐링 토크 콘서트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아이돌보미 직무의 특성상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만호 기자



익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도동동에 화장지 등 기부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1월 12일,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화장지 10팩과 쓰레기봉투 10묶음(20L x 10매)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는 그동안 우유팩을 화장지로, 폐전지를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양이 꽤 모였을 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한 사람으로 알려지며 남원 시민의 진정한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자는 "나도 아프고 나이 들어 나라의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답을 하고 싶었고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었다.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 이웃을 끝까지 돕고 싶다"고 전했다. 소선자 도동동장은 "본인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어 준 기부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촘촘한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장애 생활체육대회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지난 15일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 내에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장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 이용자 25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장애인 부분에서는 한궁, 슨런, 스탱스, 보치아 경기가 진행 되었고, 노인 부분에서는 당구, 탁구, 물병 세우기, 스탱스 컵에 공넣기, 풍선 배드민턴 경기가 진행되었다. 분야별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메인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이벤트 게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지난 15일 큰나무기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영림단, 감리자를 대상으로 산림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와 연계해 실시했고 TBM(안전점검 및 교육 일지) 및 안전사고 사례 기반 대응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큰나무기기사업 공정 중 '걸린나무에 의한 사고'에 대해 최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인용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벌목작업과 작업시 주변 통제 등에 관한 세부 교육을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마을운동 남원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새마을운동 남원지회(회장 배종선)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 남원시협의회(회장 오운봉)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옥) 회원 150여명이 3일 동안 배추 3,100포기를 손질하고 직접 담근 찜갈과 갖은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김치를 버무렸다. 배종선 남원지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통합과 상생의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새마을운동 남원지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자봉센터, 김장 나눔 봉사활동 진행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가 지난 14일 임실군 여성봉사회, 자유총연맹여성회, 직접자봉사회임실지구협의회, 임실여성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자율방재단 등 15개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40여 명이 참가해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배추김치를 정성껏 버무려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에 10kg씩 16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설상회 부군수, 장종민 군의회 의장 등 각 기관 단체장이 참여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고창경찰, 수능 후 청소년 범죄예방 선제대응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4일,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양지구대와 자율방범대원 20명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수험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주 찾을 수 있는 학교 주변·번화가·골목길·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였으며,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고창경찰서는 20일까지 약 3주간 청소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무주경찰, 수능 후 청소년 밀집지역 등 합동 점검

무주경찰서(서장 박충근)는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청,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초·중·고 주변 청소년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합동 단속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수능 이후 동계방학 및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일탈, 비행 우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전개됐다. 박충근 무주경찰서장은 "수능 전후로 방학과 졸업식 등 청소년들의 일탈, 비행노출이 높은 시기로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 및 점검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